

상반기 AI·원전株 급상승… 코스피 시총 순위 ‘앞치락뒤치락’

시총 5위였던 현대차, 5월 9위로 네이버·KB금융·두산에너지빌리티 등 당분간 5~10위 종목 경쟁 지속될 듯 코스피, 주도업종 부재 ‘장세 고요’

상반기 ‘불장’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순위권 경쟁이 치열하다. 연초부터 5위 자리를 지켜오던 현대차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두산에너지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은 뚜렷한 주도업종이 부재한 채로 ‘상승 랠리’에 절반만 탑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초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5위를 유지하던 현대차의 시총 순위는 이달 들어 9위권까지 밀려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AI와 원전·방산 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반기를 주도했던 만큼, 시총 상위권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불장’과 함께 코스피 시총 5위권을 두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5.76포인트(0.52%) 오른 3071.7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고 상장사들이 앞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 시총 5위는 연초부터 5월 초까지 현대차가 유구하게 지켜왔던 자리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코스피 5위부터 10위 종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23일부터 25일까지는 네이버가 시총 5위를 유지했으나, 26일에는 현대차, 27일에는 KB금융으로 계속 변동됐다. 30일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3.95% 급등하면서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테마들이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인 원전 활성화 기조에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들어서만 27일까지 274.93% 폭등했으며, 방산 수요 기대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2.59% 급상승하면서 한때 시총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각각 연초 시총 36위, 23위에서 훌쩍 뛰어오른 것이다. 게다가 AI 육성 공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있는 네이버, 증시 부양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까지 참전해 있는 만큼 당분간 시총 5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원전 및 SMR 주기기 공급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경기 회복과 정부의 AI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고요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전지와 바이오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주도업종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30일까지 코스피는 13.8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5.57% 상승에 그쳤다.

중심이 없는 만큼 코스닥은 악재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증시가 흔들렸던 지난 13일에도 코스피는 0.87% 하락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2.61% 떨어지면서 크게 무너졌다. 중동발 악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집중 매도한 탓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업종을 보면 방산, 기계, 금융지주 등이 있는데, 그에 반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의 분야가 부진하다 보니 시장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부진했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산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산업 관련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기업들도 보다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전년비 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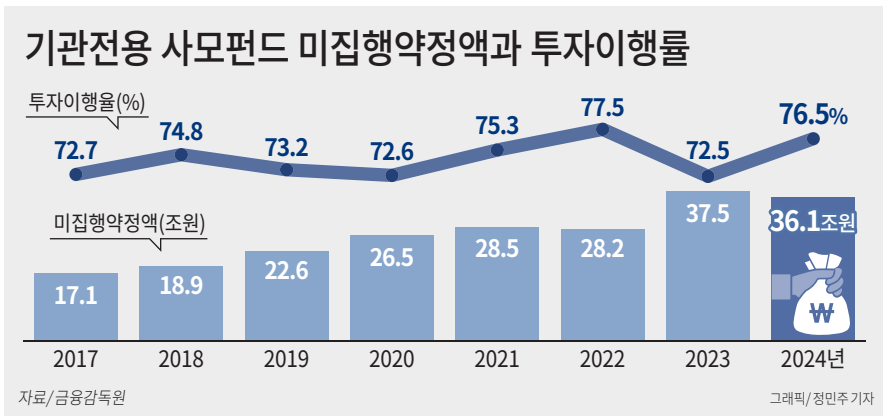
금감원, 지난해 투자 집행액 24.1조 국내 21.4조 25%, 해외 2.7조 33%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신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은 대형 운용사(GP)에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32조5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25.8%) 줄었다. 국내 투자액은 21조4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24.9%) 감소했고, 해외 투자액도 2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32.5%) 줄었다.

이 기간 투자 대상 기업 수는 431곳으로, 전년(594곳)보다 163곳 줄었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도 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원 감소했다.

추가 투자 여력을 뜻하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기준 3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



억원 줄어들며 소폭 감소했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집중됐다. 특히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에 대한 투자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 급증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투자 위축과 달리 외형상 성장은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로 전년보다 11개 늘었고,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으로 12.6%, 실제 집행된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으로 18.8% 각각 증가했다.

펀드 운용사(GP) 수도 437개사로 전년 대비 15곳 늘었다. 출자 약정액 기준으로 보면 1조원 이상 대형 GP는 40개

사(9.2%)였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자금 비중은 전체의 66.2%로 전년(64.6%)보다 확대됐다. 반면 1000억원 미만의 소형 GP는 242개사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지만 자금 비중은 감소했다.

신설 펀드 173개 중 대형 펀드는 9개로 전년(13개)보다 줄었지만, 중형(44개), 소형(120개) 펀드는 늘어나며 중소형 GP 중심의 신규 진입은 이어졌다. 펀드 유형별로는 특정 대상을 정해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가 113개(65.3%), 블라인드 펀드가 60개(34.7%)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한조선, 5000억 규모 IPO 공모 진행

이달 삼양컴텍 등 10여개 기업 청약

중형 조선사대한조선이 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공모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대한조선이 하반기 IPO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조선, 에이유브랜즈, 삼양컴텍, 지투지바이오, 아우토크립트, 아이티캡 등 10여개 기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대한조선은 오는 7월 22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관련주가 IPO 시장에 등판한 것은 16년 전인 2009년 삼강엔앤티(현 SK오션플랜트)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다시 뚜렷해진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다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IPO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단기 매도 제한)을 건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를 줄이고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공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증권 ‘책무 이행 결의대회’ 개최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의지 표명

현대차증권은 지난 27일 책무 이행 결의를 다지는 ‘책무 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임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현대차증권의 강한 의지를 전사적으로 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을 비롯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실질적인 책무를 부여받은 주요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단순 준법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현대차증권 본사에서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오른쪽)과 이후술 준법감시인 사무가 결의서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무 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강화했다. 특히 각 임원의 책무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교환사채 발행’ 태광산업, 주가 급락

자사주 소각의무 회피 ‘꼼수’ 비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11.24% 하락한 97만 9000원에 마감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비율은 발행 주식의 24.41%다. 태광산업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신사업 추진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EB 발행이 이를 피하려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도 강하게 반발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차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관희 기자